

농촌마을 맞춤형 '모심택시' 확대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노선 폐지 마을 주민 위해 확대 운행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촌마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는 맞춤형 마을택시가 확대 운행된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시행된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기존 버스 노선이 폐지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외곽 농촌 마을 주민들을 위해 모심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모심택시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모시러 간다'는 의미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교통서비스다.

모심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중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지역, 해당 마을회관에서 마을별로 정한 재래시장 등 주요 거점까지 운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된

평화2동 신평마을이 모심택시 운행지역에 추가됐으며, 기존 운행지역이었던 삼천3동 우목·신덕마을은 운행 횟수가 늘어났다.

마을별 운행 횟수와 시간, 장소 등은 기존 버스 노선 시간과 사전에 해당 마을의 수요를 조사해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 결정했다. 평화2동 신평마을의 경우 정류장에서 남부시장까지, 삼천3동의 신덕·우목마을도 마을회관에서 남부시장까지 각각 운행된다.

이로써 전주 모심택시는 기존 △조촌동 청복·방죽안·신유강·쌍철마을 △우아동 장재마을 △우아2동 공덕·삼천·가소·재전·왜망실·관암·무능·원산정마을 △삼천3동 석산·우목·비아·만수동·신덕마을 △호성동 동산·봉암마을 등을 포함해 총 6개동 21개 마을에서 운영돼 주민 2,644명이 모심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심택시의 이용요금은 2000원이다. 한 대에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마을 주민 4명이 탑승할 경우 1인당 5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이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은 전주시가 모심택시 운행자에게 보조한다. 시는 향후 택시 이용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모심택시의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운행 시간, 횟수 및 운행노선 조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모심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오지 마을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주민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여 대중교통 오지마을 어르신들의 진정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 아파트 거래량 대폭 감소

시 부동산거래조사단, 조정대상지역 지정·금리 인상 영향 지난해 거래량 1만3058건으로 2020년보다 20.5% 감소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동산 구매심리가 식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주시 부동산거래조사단은 지난해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1만3058건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1만6426건보다 20.5%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거래조사단은 이 같은 거래량 감소추세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위축된 구매심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17일 전후를 비교하면 2020년 12월 2131건이었던 거래량이 불과 한 달 후인 2021년 1월 890건으로 41.7% 급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까지 월평균 1000~1200건대를 유지하던 전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기준금리 인상 등 집값 둔화 분위기가 감지된 지난해 10월 991건으로 하락했으며, 이후 △11월 909건 △12월 694건 △2022년 1월 647건으로 4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1월 전북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9로 지난해 9월(143.3)보다 31.4포인트나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집값 상승 기대감을 수치화한 것으로 0~200의 숫자로 지수화하며, 통상적으로 95~114 사이 수치는 보합 국면으로 분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전주와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각각 전년 대비 23.9%(5709건→47708건)와 7.2%(5109건→4807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는 지난 2020년 예코시티·혁신도시·효천지구·만성지구 등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 유입과 함께 실거주자들의 추격 매수가 붙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으며, 같은 해 12월 17일 전북 최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북 최초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을 신설한 시는 연중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임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시민이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한다

전주시 평생학습 기본방향·5대 목표 설정

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이 함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평생학습도시 전주'라는 비전과 함께 2022년 전주 평생학습 기본방향 및 5대 목표를 설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해 평생학습의 기본방향은 전주 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사회변화와 시민들의 교육 욕구 증가에 부합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열린교육과 배움의 기회제공 △소통과 나눔의 시민 사회 조성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및 운영 △학습 경제형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시스템의 체계화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생애주기별 열린교육과 배움의

기회 제공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선택권 강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평생학습대학·우리학교 운영 △비문해·저학력 문해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문해교육 추진 △복지관 등 14개 소의 관내 성인문해교육 운영기관 프로그램 지원 △학력인정기관 등 6개소 야학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소통과 나눔의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전주정신 한국의 꽃 심 전주학산 △인문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인문학의 일상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및 프로그램 확대 △생활형 평생학습 거점 확대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전주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등을 추진한다.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화하고, 평생학습 활동

을 양성할 계획이다. 시민인문세미나 육성과 강사은행 적용 및 강사학교 운영 등 평생학습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습경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형 평생학습 일자리 프로그램 △혁신도시상생발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0+인생학교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강사 교육 및 일자리 지원연계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뉴스+e고리 등 평생학습정보 일원화 및 확산 △친숙한 주제의 전주상식 '윤슬' 제공 지속 추진 △평생학습 모바일 및 환류체계 개발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올해 평생학습 분야 신규사업으로 온라인 일상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 온라인 교육시스템 'e스튜디오'를 구축·운영하고, 잠재된 마을의 다양한 인문학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인문콘텐츠를 개발해 출판으로 연계시키는 '복작복작 마을 인문학출판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힘든 청소년들의 정신과 마음을 어루만져줄 청소년 마음치유 인문학도 새롭게 시작된다.

/김윤상 기자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노닐다'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5일~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서 개최

전통한지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오는 5월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노닐다'를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이하 조직위)는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슬로건은 '한지로 누리고 한지와 노닐다'로 '생활 속 한지의 쓰임을 살펴보고 한지와 맘껏 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직위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지로 하나가 돼 힘과 위로를 서로에게 전하자는 희망을 축제에 담았다.

축제 포스터는 한지의 자율인 'ㅎ'과 'ㅈ'의 현대적인 간결함을 강조하고, 한글과 한복의 모양을 형상화함으로써 한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하나의 포스터를 색깔을 달리해 색조 대비를 돋보이게 함으로써 홍보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28번째 전국한지공예대전 포스터도 자율과 모음 사이 한지공예와 관련 문양 배치해 공예 대전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조직위는 한지축제에 걸맞게 포스터 일부를 한지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전주한지문화축제는 코로나19 방역 및 시민안전전을 위해 비대

면 70~80%, 대면 20~30%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축제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그간 어린이날 전후 개최된 한지문화축제의 역사성을 늘릴 수 있고, 향후 한지의 수요를 창출할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꾸미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순품한지, 가족캠프 등을 확대 운영하고, 전략적 집약적 홍보를 통해 사전모집부터 행사까지 윈스톱 관리를 통해 자연스런 한지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한지 산업계가 함께 만드는 한지로 만들어진 디자인 물품과 업체를 소개하는 디지털 쇼룸, 오프라인 쇼룸 등이 구성되는 등 한지의 쓰임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한지 산업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포스터 공포를 시작으로 온라인 홍보에 돌입한 조직위는 다음 달부터는 공예대전 공모 및 축제 참여자 등을 단계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제26회 전주한지문화축제 포스터.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